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코미술관 3층 강당

음악 · 전통예술

7월 3일(목) 오후 2시, 4시 30분

1회 문학
6월 30일(월)

2회 시각예술 · 다원예술
7월 1일(화)

3회 연극 · 무용
7월 2일(수)

4회 음악 · 전통예술
7월 3일(목)

5회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6회 생활 속의 예술 · 문화복지
7월 7일(월)

7회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7월 11일(금)

차례

I. 음악	
• 발제	
– 음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작은 생각 3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 토론	
– 음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 왕치선(음악평론가)	
– 음악 지원정책의 쟁점들 17 이나리메(음악평론가)	
– 음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21 이석렬(음악평론가)	
– 음악 관객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기대하며 24 정선구(A&A대표, EBS SPACE '공감' 기획자)	

II. 전통예술	
• 발제	
– 전통예술 환경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9 원일(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	
• 토론	
– 전통예술 지원사업 현황과 제안 59 한만주(한국문화예술기획 대표)	
– 전통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63 윤명원(단국대 교수)	
– 전통예술 지원사업 현황과 제안에 대한 토론문 진옥섭(전통예술 연출가)	
– 전통예술환경의 문제점들 65 김대진(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기획팀장)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주제 1: 음 악	
*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각 20분)	
14:00~14:20	발제 :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토론(각 10분씩)	
14:2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치선(음악평론가) - 이나리메(음악평론가) - 이석렬(음악평론가) - 정선구(A&A대표, EBS SPACE '공감' 기획자)
15:00~16:00	지정 및 자유토론
16:00~16:20	휴식
주제 2: 전통예술	
*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각 20분)	
16:20~16:40	발제 : 원일(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토론(각 10분씩)	
16:40~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만주(한국문화예술기획 대표) - 윤명원(단국대 교수) - 진옥섭(전통예술 연출가) - 김대진(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기획팀장)
17:20~18:10	지정 및 자유토론
18:10	토론회 종료

음 악

발제

음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작은 생각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1. 들어가기

* 우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미국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NEA의 음악 분야 지원 사업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우리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

* 우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빌려 올 수는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데에 의미.

2. NEA의 음악 분야 지원 사업 개요

* NEA는 2003년부터 National Initiatives라는 제목으로 8개의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 본 발제에서는 특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National Initiatives는 제외한 일반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음악 분야의 카테고리: NEA의 음악 분야 지원은 고전음악 전 분야와 재즈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오페라와 뮤지컬은 별도의 지원 분야로 분리되어 있음.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주 단체와 음악을 제공하는 기구(Institute)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한하고 있음. 한 단체는 하나의 지원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일반적인 권고 사항

(1) 새로운 공연 방식과 신규 청중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를 환영함.

(2) 기존 레퍼토리 외에도 미국 창작음악의 연주와 위촉을 권장함.

3. 예술 기금 (Grants for the Arts)의 지원 분야 대분류

(1) 우수 예술 향유(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예술적 우수성과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데에 기여하며, 모든 미국인들이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5,000-\$150,000까지 신청 가능.

다음 7개 항에 해당되는 사업

- 1) 작품의 창작과 수정, 연주, 등의 기회를 제공
- 2) 모든 문화와 시대의 예술 작품을 출품
- 3) 예술과 문화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을 계승
- 4) 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이 청중의 확대와 다양화에 기여
- 5) 다양한 범주의 예술 형식과 행위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6) 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의 능력을 향상
- 7) 지역 사회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

* NEA는 소외 계층의 예술 근접성을 늘리는 데에 기여를 권장하며 미 국회는 개인에게 직접 지원은 금지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기금 신청: 2회에 걸쳐 접수.

3월 마감 사업은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임.

- 1) 우수한 예술 작품의 공연.
- 2) 신작의 위촉과 초연, 재연주
- 3) 상주(residency) 활동
- 4) 전문 음악인을 위한 예술적 발달과 훈련 프로그램.
- 5) 넓은 범위의 음악단체와 음악인들을 위한 서비스들: 예) 워크숍, 콘퍼런스, 출판, 기술적 보조, 네트워크, 온라인 리소스 등.

8월 마감 사업은 다음 해 6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임.

- 1) 국내 순회 공연

- 2) 다양한 집단과 새로운 청중을 찾아가는 사업
- 3) 미국 작곡가 작품의 녹음
- 4) 기록의 보존과 정리 사업
- 5) 음악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일반인 사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 6) 성인, 아동, 세대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함. 각 지원 단체는 다음 5개의 성과 중 하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1) 예술인과 예술 단체는 예술 작품을 창작, 해석, 제시, 연주할 기회를 가짐.
- 2) 예술 작품과 문화 전통이 보존됨.
- 3) 단체는 그들의 예술적이며 공공의 서비스 목적을 시행할 능력이 강화됨.
- 4) 전국에 걸친 청중들이 다양한 범위의 예술 형태와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가짐.
- 5) 예술이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함.

(2) 미국의 도전 (Challenge America)

- * 중소 규모 단체의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젝트에 지원.
- * 소외계층에는 지역, 종족, 경제력, 장애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함.
- * 이 기금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아래에 기술된 특정 사업에 국한됨.
- * 사업 당 \$10,000 지원
- * 신속한 심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선정 여부 통보. 선정된 후 바로 사업 시행 가능.
- * 신청 마감은 6월이며 다음 해 1월부터 사업 시행
- * 다음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
 - 1) 한 명 이상의 초빙 음악인을 포함한 행사.
 - 2) 전문가들의 지도에 의한 공공 예술 프로젝트
 - 3) 문화 시설과 공간의 재건축, 보수, 변경이 포함된 공익 디자인 사업. 직접적인 공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를 위한 디자인 공모전이나 연구 용역 등에 지원함.
 - 4) 지역의 예술 활동과 자원의 통합 프로모션: 지역의 문화 지구의 관광과 문

화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 각 지원 단체는 다음 5개의 성과 중 하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1) 예술인과 예술 단체는 예술 작품을 창작, 해석, 제시, 연주할 기회를 가짐.
- 2) 예술 작품과 문화 전통이 보존됨.
- 3) 단체는 그들의 예술적이며 공공의 서비스 목적을 시행할 능력이 강화됨.
- 4) 전국에 걸친 청중들이 다양한 범위의 예술 형태와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가짐.
- 5) 예술이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함.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 (Learning in the Arts for Children and Youth)

* 이 지원의 배경 이론은 다음 두 측면에 의해 예술 교육이 미국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한 결과임. 1)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즐기고 참여해야 한다. 2) 학력과 사회성의 성숙도는 예술 교육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 신청 사업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1) 경험: 학생과 교사들은 모범적인 예술 작품을 직접 경험해야 함.
- 2) 공부: 교사나 음악인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예술 작품의 이론적 배경과 기술적/미학적 측면을 공부하도록 함.
- 3) 실현: 경험하고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한다.
- 4) 평가: 학생들은 국가나 주정부의 예술 교육의 규범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기금은 5세-18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사업을 지원함. 다음 두 사업 방식이 가능함.

1) 학교 기반 사업: 교내에서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방과 후 수업까지 포함됨. 이 사업은 교사나, 예술 분야 교사, 학교 행정인력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능함. 이 기금은 개별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함.

2) 지역사회 기반 사업: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심. 지역의 예술 단체 뿐만아니라 일반 단체도 예술가나 예술가 그룹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함. 이 사업은 교사,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를 위한 교육에도 지원이 가능함.

* 신청 가능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예시

- 1) 음악의 장르와 형식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 2) 예술 교육과 다른 교과목의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
- 3) 예술 교육이나 예술 단체 전문의 음악인들이 국가 공인의 규범에 맞는 음악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레슨이나 교과목 운영
- 4) 전문 예술가가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방과 후 시간 동안 학교 교과과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 5) 교사와 예술가,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 및 학생 예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 6) 전통 예술과 예술 교육 분야에서 NEA의 문화유산 기금 수혜자가 포함된 프로젝트

* 명시해야 하는 기대되는 성과

- 1) 아동과 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주정부의 예술 교육 규범과 일치하는 예술의 이해와 지식, 기술이 향상되었다.
- 2) 교사와 예술가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 교육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4) 미국의 대가들: 실내악 (American Masterpieces: Chamber Music)

* 작품의 연주와 그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미국 실내악 작품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함.

* 최소한 하나의 공연과 두 개의 교육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권장함.

* 신청 가능 단체: 앙상블, 기획자, 페스티벌, 대학

* 1:1의 매칭 펀드 방식 지원

* 비영리 단체,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족 단체.

(5) 미국의 창조성과 고령화 (Creativity and Aging in America)

- * 2008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임.
- *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과 노령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 * 1:1 매칭 펀드 방식 지원
- * 비영리 단체,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족 단체.
- * 프로젝트 예시
 - 1) 노인이 포함된 합창, 기악 그룹, 작곡 활동
 - 2) 노인 학생과 음악인들 사이의 교육 프로그램
 - 3) 노인을 위한 평생 교육 개념의 프로그램
 - 4) 노인을 위한, 의한, 과 함께 하는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 보조 활동
- * 프로젝트의 필수 사항
 - 1) 음악과 문학 분야에 국한됨.
 - 2) 노인의 참여에 초점을 맞출 것
 - 3) 전문 예술가의 고용
 - 4) 고령화 이슈를 관장하는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준비하고 시행.
 - 5) 노인을 예술가로서,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교육자로 참여시킬 것.
 - 6) 다양한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6)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예술 (Arts on Radio and Television)

- * 전국에 방송되는 예술 관련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지원
- * 1:1 매칭 펀드 방식 지원
- * 비영리 단체,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족 단체.
- * 기대되는 성과
 - 1) 전국의 청중이 다양한 예술 형식과 예술 행위를 경험할 기회를 가졌음.

4. 지원 받은 사업의 예 (2008년의 경우)

(1) 우수 예술 향유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1)

- 1)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25,000): 2009년 미국 음악 페스티벌, '강'. 헨리

헛슨이 헛슨 강을 여행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달 간의 페스티벌, 다수의 위촉과 연주 포함

2) 미국 음악 센터 (\$25,000): 창작 미국 음악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

3) Astral Artistic Services (\$10,000):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음악회 지원. 제니퍼 커티스와 사에카 마추야마, 고려 현악사중주단 등

4) 볼티모어 클래식 기타 협회 (\$7,500): 가브리엘라 레나 프랑크의 기타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신곡을 위촉하고 연주하고 녹음하는 프로젝트.

5) Bargemusic Ltd. (\$7,500):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상주 현악사중주단을 지원. Vertigo 현악사중주단은 15회의 연주회와 지역 학교의 학생을 위한 두 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

6) 브룩클린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25,000): 존 코릴리아노의 70회 생일 기념 페스티벌 지원.

7) 헨델과 하이든 협회 (\$10,000): 하이든 미사곡의 정격 연주와 교육 활동을 지원.

8) 밀즈 대학(\$7,500): 밀즈 대학의 현대음악 센터의 연주회 지원.

9) 아스펜 음악제와 학교 (\$20,000): 아스펜 음악제의 미국 지휘 학교 지원.

10) 내쉬빌 공영 라디오(\$5,000): 내쉬빌 지역 음악인들의 인터뷰와 연주의 생방송 지원.

11) 뉴욕 필하모니(\$70,000): 뉴욕 필의 레너드번스타인 축제 지원. 번스타인의 작품 연주와 연관된 교육 활동 포함.

(2) 미국의 도전 (Challenge America)

1) 샬럿 심포니 오케스트라 (플로리다): 바이올린연주자 Doug Cameron의 독주회와 워크숍 지원.

2) 알바니 심포니 협회(조지아): 알바니 주립대학 합창단과 초빙 피아니스트 Marcia Hood의 연주를 지원. 일반 청중을 위한 연주회 외에도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두 개의 연주회.

3) 빌링스 심포니 (몬타나): 첼로연주자 Alisa Weilerstein의 연주를 지원.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연주와, 지역의 젊은 첼리스트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인근 청소년을 초청하는 오픈 리허설 포함.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 (Learning in Arts for Children and Youth)

1)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40,000) Music Notes/Project Core. 베로나 공립학교의 협력 하에 뉴욕과 뉴저지 학생들에게 음악 실기 지도를 제공하며 인문 과목과 오케스트라 음악의 융합을 시도.

2) 오스틴 클래식 기타 협회, 텍사스 (\$18,000) 저소득 계층의 학생을 위한 개인 레슨과 오스틴 지역의 5개 학교의 기타 수업을 위한 교과과정 계획을 지도.

3) 카네기 홀, 뉴욕 (\$75,000): LinkUp 프로젝트를 지원. 뉴욕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카네기 홀 직원들이 기본 음악 개념의 지도를 위한 교과 과정 개발,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워크숍, 학교의 수업과 교사 지원을 1년간 시행. 봄 학기에는 학생들이 전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공개 연주회를 개최.

4) 줄리아드 음악원, 뉴욕 (\$25,000) Music Advancement Program 지원. 줄리아드 교수진이 뉴욕 시 공립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5. NEA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심사 과정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 NEA의 우수예술 향유 사업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8개월 후에 결과가 발표됨.

* 심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

* 심사 준비를 위해 위원회 내부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심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는 즉흥적인 심사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2)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NEA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하지 않음. 국회의 강제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금도 개인이 신청하는 많은 사업의 경우 기획사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음.

* 간접 지원을 통해 음악의 인프라를 더욱 넓힐 수 있음.

- * 즉, 개인을 지원하고 육성할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더 높음.
- * 예를 들어, 기획사를 육성하면 그 혜택은 음악인들에게 돌아옴.

(3) 영리 또는 공립 단체의 경우에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단체의 성격이 사업의 성격을 자동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님.
- * 영리 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오히려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 NEA가 줄리어드 음악원이나 유명 음악제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좋은 예임.
- *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예술 사업 경우 대부분 공영 방송이 지원을 받음.
- * 우리의 공영 방송의 경우 그 성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님.
- * 중요한 것은 방송 매체를 통한 예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함.
- * NEA는 공영 방송의 순수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

(4)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만이 진흥기금의 수혜자는 아니다.

- * 기금의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틀림없으나, 더 크게 보면 그들의 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청중도 수혜자임.
- * 우리는 지나치게 단체나 개인만이 수혜자라고 간주하고 있음.
- * 수혜자 또는 수요자가 청중도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기금 정책을 세워야 함.

(5) 예술 교육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NEA는 순수 예술 활동에도 지원하지만 많은 사업이 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
- * 이는 아마도 예술 향유층을 넓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특히 미국은 일반 학교에서 예술 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사료됨.
- * 우리의 경우도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예술 교육이 학교에서 밀리고 있음.
- * NEA는 예술 교육은 학력 향상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음.

- * 즉, 예술 교육을 통해 전인적인 성격 형성을 추구하는 듯함.
- * 방과 후 수업을 음악 교육에 할애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일선 학교에서 알찬 내용의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움.
- * 미래의 음악 청중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음악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자.

- * NEA의 노령화 시대를 위한 사업은 올 해가 처음인지 그 지원 사례가 발표되지 않았음.
- * “미국의 창조성과 고령화” 사업은 우리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우리의 노령화 시대는 예고 단계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대비는 미미함.
- * 특히 고령의 전문 음악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
- * (5)와 연계하여 은퇴한 연주가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함.

(7) 창작 즉, 작곡 분야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 * NEA는 많은 부분을 창작 음악 지원에 할애하고 있음.
- *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임.
- * 우선 고려 대상은 상주작곡가(composer in residence) 제도로 오케스트라에 상주작곡가 초빙을 지원함.
- * 작곡가의 작품을 큰 규모의 청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작곡가의 입장에서라도 청중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형성될 것임.

6. 나가기

(1) 무모한 그러나 성공한 지원의 예: 바그너와 바이로이트

- * 1864년 왕위에 오른 독일의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보다 33살 어린 18세의 젊은 왕이었음.
- * 루드비히 2세는 왕위에 오른 후 19년간 바그너를 후원했음.

- * 루드비히 2세가 19년 동안 모두 56만 마르크를 바그너에 지원했음.
- * 이는 왕실 1년 예산의 1/7에 해당되는 액수임.
- * 루드비히 2세는 음악을 잘 몰랐지만 그의 무모한 지원으로 독일의 시골 도시 바이로이트에는 매년 여름 10만 명이 모이고 있음.

(2) 프랑스의 작곡가에 대한 인식: 파리음악원 도서관

- * 프랑스 최고의 음악학교인 파리음악원은 베를리오즈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랑스 작곡가를 양성했음.
- * 수많은 유명 작곡가들이 학창 시절에 남긴 작품을 1980년대까지 음악원 도서관이 보관했고 이는 음악원의 큰 자랑거리였음.
- * 그러나 음악원이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보관 중이던 모든 작곡가 작품을 국립도서관에 빼앗겼음.
- *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도 작곡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며 200년 후에는 국립도서관보다 더 많은 유명 작곡가의 작품을 보유하게 되리라 여유를 보이고 있음.

(3) 예술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즉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예술음악이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토론

음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왕 치 선(음악평론가)

들어가며

자본주의의 대두로 다수가 예술을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는 예술외적인 강제 없이 예술가와 감상자, 혹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가의 영향력이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술계는 그동안 시장 외에서 그 의지처를 찾았고 정부 지원의 혜택 속에서 긴장감 넘치는 생존력과 존재가치 부여를 위한 예술가로서의 투쟁적 근성이 희석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우리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금 지원자 측과 기금 수혜자의 양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기금 지원자

기금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공정성 확보**의 문제다. 그러나 필자가 참여해본 몇 건의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기관도, 심사위원도 공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대부분 자신이 활동하는 장르가 아니면, 지원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신이 활동하는 장르라 하더라도 공연현장에 부지런히 다니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게 위해서는 기존 단체나 심사의 자료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이 연주자 출신이 많은 경우와 작곡가 출신이 많은 경우의 결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비교적 젊은 예술인으로 짜인 경우와 연배가 높은 분들로 꾸며진 경우가 다르다.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과 분포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심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정기간의 심사기간을 주는 경우도 심사위원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기대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심사기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업의 목표의 명확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에 있던 창작 지원금 (2008년부터 지원기금의 항목명이 바뀌었다) 이라는 항목의 경우 창작 작품은 물론 일반 연주단체의 정기공연에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혼동은 지원신청을 하는 단체도 혼돈하게 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프로그램은 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지원(새 명칭)에, 한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복권기금사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 항목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지원 혜택이 어떤 주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등이 보다 정교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금집행의 효율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신청을 한 사업들 중에는 기금을 받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서류에 적힌 신청금액을 다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지원받은 후 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없다. 하지만 일단 선정이 되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등 지원신청을 할 때부터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액의 지불방법에 있어서도 지원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이뤄지는 공연간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받는 쪽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지원과 기금 집행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기금 신청자

기금은 지원을 하는 쪽이나 지원을 받는 쪽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공공기금의 집행과 사용에 수반되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가 따른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을 하는 쪽에 대한 비판에 비해 정작 기금 수혜자 측의 책임감은 논의된 적이 많지 않았다.

개인의 예술 활동에 지원하던 예전의 지원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면도

있다. 그러나 기금의 신청자는 본인들이지만 최종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금의 이상적 운용이 가능하려면 지원하는 쪽만이 아니라 수혜자의 **인식 전환**이 함께 수반되어야한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보면 기금과 상관없이 공연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타면하고 아니면 못하는 식의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따라서 지원서의 내용도 타당성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기금 수혜자중 일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원 신청과 교부신청 그리고 결과 보고서 제출의 과정자체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혜택은 얻고자 하면서 그 의무는 부인하는 형국이다. 서류에 적은 내용 하나하나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한다.

또한 대부분의 수혜단체들은 자신들이 기금을 타지 못하면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한다. 탄 경우에도 기금이 적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 나아가 누가 자신들을 감히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분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기금을 신청한 이상, 지원기관의 심사와 평가 그리고 약속이행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행해야만 그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수용**해야 한다.

맺으면서

1973년 문예진흥원이 문을 연 이래 30여 년 동안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은 무수히 논의되어왔고, 심사의 방법도 여러 번 바뀌었다. 최근에는 정부에 예속되어있는 관료 지배적 구조의 문제를 바꾸자는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예술인들 스스로 현장 예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비난과 원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한 몇 가지에서 야기되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오는 한계라고 여겨진다. 또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정부와 제도권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철저한 예술정신에 입각한 실험적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예술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생존의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토론

음악 지원정책의 쟁점들

이 나 리 메(음악평론가)

열림

허영한 선생님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의견이 담긴 발제의 방향에 동의하면서 소위원회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시키고자 함.

*공모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한국 음악계와 그를 둘러싼 향수층의 환경을 심도 있게 접근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반하는 대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

*이상적인 지원모델과 의견들은 너무나 많으나 실제적 구현을 위해서는 기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조사연구, 법제도 정비)은 아직 미미한 단계라고 사료됨.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타 분야 예를 들어 복지부분이나 도시 인프라 조성 등 계량적이거나 가시적인 성과들이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사업 모델이나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원 사업이 도달해야 할 지점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재의 상황 등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1. 심사준비기간

예술위원회 전환 후 서류 검토 기간이 과거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음, 심사기간이 길어졌을 때 현실적으로는 공정성이나 외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하느냐가 문제.

2. 위원회 내부 전문가 상주에 대한 의견

이전이나, 현제도 “전문위원” 등의 보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고려됨, 소위원회 위원이 지원 심의에 간여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관은 순환보직구조인데 전문 인력의 상주가 현실적으로 역기능을 수행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개인에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민간부분에서 개인예술가를 후원하는 제도, 혹은 사회적인 규준이 존재한다. NEA의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는 각 주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증진이 지원의 목표와 부합이 되는 부분이다.

영국 ACE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략적으로 개인 예술가를 지원했으며, 프랑스는 결국 절반에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되는 일정시간이상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예도 있다.

예술의 발전은 예술가 개인의 발전으로부터 비롯되며 단체의 힘이 강해지면 또 다른 예술권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음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획사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많고 예술가는 상대적으로 지원의 혜택이 적다는 의견도 있음.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획사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제상의 혜택 등 많은 부분이 기획사나 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획사는 대부분 영세한 구조며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기금이 알뜰하게 집행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실제 심의 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획사 지원 결정을 꺼리는 경우도 많음.

예술인이 기획사에 줄을 서게 되고, 기획사에 종속될 우려도 있음.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기획사가 좀 더 공공적인 입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많은 예술가들이 서류작성을 번거로워 여기는 정서가 있기도 하며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 예술위원회에서 서류작성

안내 매뉴얼을 더욱 충실히 만들고 지원에 관한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규정 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음. 아무리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해도 한국의 특수성과 현실에서 그 취지가 왜곡되고 예상 효과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음악제도 프로듀서 시스템이 확립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를 통한 제도 및 발전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창작 즉, 작곡 분야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문예진흥기금의 음악분야 지원에서 작곡분야의 지원 비중이 매우 크다. 창작관현악지원 3억, 음협 “한민족음악축전” 등 작곡분야 1억, 작곡가 협회 “실내악축전 4천만”, “범음악제 4천만” 등 규모 큰 지원을 포함 예술창작지원에 수많은 작곡동인회 지원 및 개인 발표지원, 예술사보존 지원의 대부분이 작곡계 출판 및 CD 제작지원, 국제교류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서 대부분 지원 등 현재 음악분야 지원에서 작곡분야의 지원이 이미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작곡 외 분야의 지원을 줄이고 작곡분야의 지원을 늘리기 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또는 창구를 찾아야 하며 연주와 작곡이 공존 할 수 있는 위촉연주 활성화를 위한 위촉곡을 포함하는 연주회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 등의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함.

맺으며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음악분야의 지원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지원들을 통하여 우리 음악계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도 있었으

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다고 본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 시기와 아이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이 존재하듯이 지원도 각 분야와 그 분야가 처한 위치 및 성장 단계 및 목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원의 방법과 전략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음악인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연주회나 관객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모두 지난 세월의 지원과 예술가들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실 예술위원회에서 음악분야의 지원액은 2006년 약12억, 2007년 19억, 2008년 20억으로 예술위원회 출범 후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오페라 한두 편 정도의 제작비 혹은 대형 뮤지컬 한편 정도의 제작비 또는 영화제작비로 따지면 저예산 영화 한편의 제작비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현악, 피아노, 작곡, 성악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탄생했으며 이제 시기적으로는 관악계의 큰 도약을 예상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더 우리 음악계와 함께하는 청중들이 많은 감동을 나누며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는 세계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여러 사업들로 인하여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토론

음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 석 렬(음악평론가)

■ 이번 <예술정책 연속 포럼> 음악분야에서 발표되는 본인의 의견을 다음의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간략하게나마 본인이 발표하는 6가지 항목들은 일반적인 음악공연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외의 별도의 분야에 대한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음악인들의 공연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보다 향상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형성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악인들의 노력과 음악문화 인프라 구축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는 장르, 예를 들어 오페라 같은 분야는 지원심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페라 장르의 경우에는 공연의 성사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이 전제되는 만큼, 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지원금 액수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페라 분야의 지원이 몇 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페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오페라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페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력과 오페라 관계자들의 예술역량이 함께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술음악의 보급을 위한 사회 인프라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

다.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신력 있는 음악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중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소 시민들의 마음속에 예술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음악인들의 공연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과 음반 및 DVD 같은 매체들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매체들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악예술 자체를 즐기는 생활 습관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외의 매체들 외에도 예술음악의 사회적 전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 사회에 미디어가 끼치는 많은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전파를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미래의 예술음악 관객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공연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정 수의 공연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게 하는 기획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청중들의 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매체의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인터넷 방송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향유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예술음악 공연을 감상한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 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오페라 감상’이나 ‘브라스 앙상블 감상’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음악인들을 위한 전문 음악도서관 혹은 음악문헌자료실과 같은 장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음악의 향상과 향유를 위하여 악보를 포함한 음악서적 및 문헌들을 자유롭게 연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여까지도 할 수 있는 음악전문 도서관 및 문헌관리실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악단들이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편곡의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사운드를 제공할만한 악보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악

보를 대여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악단들의 공연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 힘들다면, 악보와 음악도서들의 비축 및 연람을 위한 시설만이라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5) 작고한 음악인들의 유산 및 현 음악인들이 소장한 자료들을 수용하고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적지 않은 음악인들이 자신들의 음악 자료 및 서적들을 보관하고 위탁시켜 놓을 만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의 자료들을 수용,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후대의 음악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현재 우리 음악계는 매니지먼트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악인들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며 공연 자체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하여 음악 매니지먼트 측면과 관련된 교육 및 행사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악 매니지먼트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검토하는 서적의 출판이나 강연회 등은 여러 음악인들에게 좋은 자극과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 공연 성사와 성공을 위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정보를 여러 음악인들에게 제공하여 자신감과 기획력을 동시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

음악 관객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기대하며

정 선 구(공연기획자)

여는 글

문화예술은 식물의 씨앗을 땅에 뿌려 몇 개월 후에 꽃을 피우게 하거나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 같은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연륜이 쌓이고, 뿌리가 깊은 고목나무 같은 것이어서 그 지원 정책도 한 세기, 또는 성급하게 서둘러도 수십 년은 바라보아야 한다.

지난 세기 우리는 음악의 생산에만 힘을 기울여왔고 지원 사업들도 그에 맞추어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소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에서 신제품을 런칭할 때 소비자의 성향과 타깃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랜 준비 끝에 내놓듯이 음악도 이제는 공연을 여는 생산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관객의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소비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 성장에 걸맞게, 또한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예술지원 사업에 관하여 공연기획자의 관점에서, 또는 TV 음악방송 프로그램(EBS SPACE ‘공감’)의 기획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층에 문화친밀감을 심어주어야.

디지털 시대에 가장 느린 걸음을 걷고 있는 분야가 ‘음악(순수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장르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층이 순수음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푸는 TV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어려운 과학문제, 시사, 경제문제 등은 답을 잘 맞히면서 늘 음악

문제에서는 막혀서 찢찢매는 장면을 자주 본다.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은 물론,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음악은 어려운 예술이 아니고 즐기는 예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래의 문화 소비자들이 음악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굳이 공연장 공간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 음악교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직접 구성하는 사이버 음악회’, ‘음악가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적 멘토(Mentor) 시스템’ 등 문화를 일찍부터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지원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국민들일수록 항상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랜드 (大)”의 관념이 예술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오케스트라 음악도 들어야 하지만 소규모 실내악과도 친밀해져야 하고, 지방도시에서는 대공연장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규모의 소공연장이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음악회들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대형 공연들도 나름대로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대형 공연들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잠자는 공연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린 음악축제, 시리즈 공연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중장기적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음악단체에 대한 지원이 선 신청-서류 심사-지원 결정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술인들의 경우, 신청을 위한 행정업무가 미숙하여 정작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술가가 지원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위원들이 스스로 지원 대상을 찾아나서는 ‘현장심사-사후 지원’의 방식도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장르의 경계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물이 무대에 올려지는 지금의 시대에 서류심사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우수한 공연예술물을 명확

히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예술상’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에 사후 지원된다면 창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순수음악의 지원 영역 경계를 좀더 넓혀야.

순수 음악의 창작과 무대 공연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 영역의 문턱을 좀 더 낮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크로스오버 음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순수 음악이 재 가공되어 대중예술과 결합될 때 지원 신청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라든지 ‘재즈로 편곡한 클래식 음악공연 및 음반제작’ 등 순수음악의 보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지원의 폭을 넓혀야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이 고르게 성장하고, 많은 문화 소비자가 고급 예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맺는 글

다양하고 많은 문화예술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게 된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음악적 생산에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음악적 소비 차원의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전개하여 공연예술의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과의 교감을 높이는 문화 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전 통 예 술

발제

전통예술 환경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원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

머리말

점점 급속히 변해간다. 어떨 때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도 종종 느끼곤 한다. 예전 만화와 영화속에서 만나던 현실과 상상은 점점 실제 현실이 되어간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과학적 사고와 기술의 속도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 빠른 시대의 변화속에서 가장 현실적 체감이 늦는 분야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씨름하고있는 전통예술인들일까? 그것을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도 그럴까?

예술은 상호작용 욕구로 부터 샘솟는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이자 소통행위이다. 소통과 소통의 접점이 커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기대하는 감동은 인간적인 차원의 더 높은 들어올려짐이 아닐까?

시대를 막론하고 근원적으로 그런듯하다.

전통예술인들의 딜레마는 거의 언제나 전통성 자체의 중요성(특수성,고유성)을 보존하고 지속시키려는 의지와 동시대성의 지지를 확보하려는(보편성,대중성)창작 행위속에서 발생되어 왔다. 전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보수적이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진보의 행위속에 전통을 녹여내기란 여간 쉬운일은 아닌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때문에 더욱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일은 분명 의미있고 지혜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모두는 막연히 고도를 기다리듯 전통을 창작으로 멋지게 녹여낼 어떤 작품을..... 마음속에 단비를 뿌려줄 그런 작품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고 연주하고 춤추고픈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속에서 우리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듬뿍담은 예술가들이 맘껏 나래를 펼치며 활동하는 그날을 언제나 꿈꾼다.

달콤한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분명히 자각해보면 전통예술계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적 요인들은 전통예술계를 둘러싼 환경이며 환경은 무의식중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검은 장막과도 같은것이다. 서해안 사태에서도 절감했듯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의 노력과 공감의 있어야 하고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글은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보다는 창작자로서 평소 느껴오던 **전통예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연스럽게 문제와 답이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

전통예술 세계화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레지던시 구상안과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구상안은 별도의 첨부를 하였다.

※첨부1:전통예술 활성화 구상안

첨부2:전통예술인력 해외 레지던스 구상안

1) 전통예술분야 구분의 문제

때로는 용어가 환경과 인식 자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기초 예술분야 중 서양음악은 음악이라 칭하고 전통은 통합하여 전통예술분야라고 부른다.

전통예술 분야에는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기피하는 듯 여겨지는 공예가 섞여 있으며 무용, 연희, 전통음악등 주로 공연예술 분야가 중심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전체적인 규모상 압도적으로 전통음악에 편중되어왔다. 그러나 공예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재에 따라서 목공예(木工藝), 석공예(石工藝), 금속공예, 유리공예, 칠보공예, 도자기공예 등으로 분류가 된다.

전통예술의 분류가 통칭되어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편중현상은 고유한 제각각의 분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오지는 않았을까?

악,가,무 일체라는 전통공연예술의 고유개념 때문에 전통예술분야라고 통칭하여 분류되었는지는 모를일이나 순수예술 분야 중 이렇게 장르 혼합되어 있는 분야는 참 드물다.

전통예술1(창작) 또는 (전통음악)

전통예술2(원리) 또는 (전통예술) 식의 분류는 어떨까?

전통음악부분과 타 전통장르가 구별되는 분류가 필요하다.

2) 전통 소재주의 위험성-예술가(단체)의 평가기준과 교육과정의 문제

현대축구는 토틸 사커를 지향하며 그 핵심은 중원을 장악하는 미드필드진의 막강한 힘(체력)과 포지션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변형포맷적응 능력에 있다.

기술적이며 전략적으로 진화하는 현대축구로부터 전통창작 방법론이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통예술 전문인 교육과정은 주로 실기를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그 결과 국악전공이나 전통무용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손기술과 신체 기술은 익혀도 이러한 예술이 탄생하게 된 시대의 생각들과, 양식적 특성을 이루는 환경을 배우지 못하니 전통 예술 원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창작에 이르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한참이나 경험을 하고나야 겨우 근본원인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신이 전공한 악기나 춤으로 풀어낼 수 없다면 진정한 예술가되기는 힘들다. 그리고 헛 공부한 셈이다. 적어도 전통적인 예술 개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교육, 공연 환경 속에서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줄 창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문화 전략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있는 듯 여겨진다. 콘텐츠 결과물로 평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마치 인문학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책도 안 읽지만 가벼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정부기관이나 위원회가 예술가의 창작 결과물에 대한 사전평가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작품으로 생산하라고 선 주문하는것은 매우 나쁜 태도로 여겨진다. 제도권 단체들이나 자연발생적 예술그룹들의 역량평가가 재정자립도나 상업적 성과와 민감하게 연결될때 저절로 예술 환경은 오염되고 변한다.

경제중심논리의 단체역량 평가와 경쟁력있는 콘텐츠의 기대는 순수예술 분야를 오염시키게 될것이다. 예술의 호흡은 놓고 쉬고 미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의 기금지원은 소재주의 전형을 보이는 창작품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축구로 보자면 막강한 공격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격수(스타)만 양성하고 수비의 중요성과 미드필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 하게 되었다. 선수가 이러한데 코칭스태프에 관심을 돌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상 전통예술가들의 역량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는 어쩌면 진주가 잔돌임을 보석이 참된 보석임을 구별하여 소개시켜줄 능력(제대로 전통을 깊이있게 이해하는)을 갖춘 음악기획가나 제작프로듀서 등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 원리와 개념이 배제된 전통 소재주의 결과들:

>나약하고 빈곤한 창작-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몇몇 프로젝트 경연들의 결과물들.(퓨전국악의 한계와 딜레마)

우리에게 다양한 수용자들이 즐겨야 할 대중예술이 필요하며 이를 상징하는 스타 예술가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범고창신의 내용을 담는 꿈의 수준, 높은 창작물 대한 기대 또한 영원하다.

>전통음계와 악기의 음색만을 차용하며 장단과 가락과 시김새가 전무하거나 간단한 부분으로서 사용되는 듣기 쉬운 음악의 만연.

>새로운 연주 전승으로서 살아나야 할 산조와 시나위의 부재.

>공간에 대한 개념의 부재.-전통적 공간성의 의미를 교육받지 못함.

>악,가,무를 융합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음악극이나 연희극이나 무용극 등 통합적 공연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해야함. 불행하게도 이때 전통에 내재된 제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연극이나 연기의 요소에 더 집착하기가 때문에 또 다시 소재주의로 전락하는 작품들을 양산.

●전통 예술 원리에 대한 재교육 과정의 필요

호흡, 장단, 시김새, 가락, 한배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전통적 방위개념, 공간개념, 건축미의 시대적 개념과 미학등

전통예술원리의 뿌리에는 동양철학적 세계관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어렵다고 더 이상 이를 개인적 공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피해가서는 안된다.

3) 전통예술의 체계적 양식화

●장르 성격에 맞는 양식별 전통 공연장 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의 다목적 극장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

공연양식에 적합한 공연장 만들기-국가적 문화의 프라이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오페라 하우스여야 할까?

(일본의 전국에 걸쳐 만들어져 있는 가부끼전용극장과 노전용무대를 보라
부러움의 대상이고 전통예술극장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친환경 웰빙 문화가 가장 고급한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예술은
소중한 고급자산임이 분명하다.

정신 및 신체에 미치는 전통예술의 높은 수준과 질적 가치를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환경문제가 첨예한 이 시대에 고품격 전통예술컨텐츠로 생산해내는 일
은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걸맞게 최적의 적합한 전통공연공간을 만드는 일은 고급화전략의 최우선
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의 소리와 음향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과 연구의 필요성

국악음반 전문 레이블 활성화 방안 마련
음반시장의 국제적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국악 관현악 음향과 배치를 어찌하리요.)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첨부2- 참조)

일반인과 전문창작자 모두 손쉽게 시대별 양식과 공연물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의 매뉴얼화와 모듈화를 통한 데이터 검색을 용이하게 함.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 ,3D 시뮬레이션화

●DIGITAL 樂歌舞 창작환경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술의 성격과 양식도 변해가고 있다.

21세기를 들어서며 모든 기계메커니즘의 초점은 친 환경과 거리와 이동에 제한
없는 통신(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 없애기) 그리고 나노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극소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술의 목표
는 분명해 보인다. 그 궁극의 도달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생각과 의견들
이 분분할 테지만 어쨌든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창작되는 새로운 전통
예술도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분야를 주목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
다. 다원예술로 분류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어찌면 정책적으로 아예 디지털 미디
어 분야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또다시 그 분야에서 장르를 나누어야 할 날이 그
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젊은 전통예술인들이 늘 손에서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친근하게 놀때 새로운 디지털 악,가,무가 탄생될것이다.

4) 전통예술인을 위한 국내, 외의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발 (별첨)

우리는 세계적인 예술을 지닌 민족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직 세계는 우리의 자부심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들은 그 자부심을 체계적으로 세계속에서 인정받고 성공시켰던 전례가 거의전무하다. 포르투갈 고유 음악인 파두의 성공사례는 국가차원에서 집중된 지원 정책이 세계화 전략을 토해 거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사물놀이가 그나마 세계에 좀 알려진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이며 그룹인 것이 현실이다.

세계를 향한 전통예술이 변죽을 울리는 현상은 가끔씩 있었지만 역시 복판을 강타하는 울림으로는 그 세기가 나아가지 못했다.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중, 장기적 전략이 부재 했던 것도 큰 원인중 하나다. 단발성 공연이나 단기 순회공연이나 페스티벌에 한두 번쯤 참가하는 것으로 전통예술인들은 만족해 서는 안될것이고 큰 그림의 구상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5)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조직, 기획하고 네트워크화 할 전문인 양성

예술의 하부구조는 축구로 이야기 하자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에 비견할 수 있겠다. 구지 히딩크 감독의 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제예술시장에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과 체계적 기획에 의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준비할 때 이다.

6) 중, 장기적 예술인(단체) 지원정책의 필요

06년 위원회가 출범하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전문예술단체 집

중육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삼년째가 되었다. 예산 편성의 년도 별 집행이라는 문제점의 한계를 극복했던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물론 결과를 쉽게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중,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집중 육성지원 정책은 개인에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는 물론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역시 평가에 대한 느슨함이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문화 정책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지속적 평가와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지원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를 위한 전략중에 전통(창작)예술그룹 혹은 예술가를 국제무대에 등용시키고 세계무대를 상대로 활동하게끔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럴 가능성과 역량이 충분히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 소규모 단체나 예술가들 중, 장기 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젊은 신진예술가를 한번 지원하고 난후-그 아티스트의 예술적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은 물론 국제적 프로모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식의 더욱 업그레이드된 지속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술가 자신이 더욱 큰 꿈을 그릴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예술분야의 환경문제를 이런 자리를 빌어 점검해보고 정책과 지원의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더욱 많은 현안들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절감한다.

진지하고 집요한 질책과 논의를 통해 풍성한 결과로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

〈첨부자료 1〉

전통예술 활성화 구상안

작성: 이동연, 원 일

1. 취지와 배경

- 글로벌 시대 전통예술 문화가 고립·소외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을 구상할 필요
- 전통예술의 문화자원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이를 경쟁력있는 문화자원으로 적극적인 활용 필요
- 기존의 창작시스템을 지양하고 전통문화 양식들의 계승 발전에 대한 진지한 모색 필요
- 아시아 문화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있는 지원정책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문화교류 구상이 필요
- '교육+창작+제작+유통'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예술의 순환적인 시스템 도입이 요구
- 전통예술 공공기관의 정체성 재정립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한국의 전통예술공연과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논리와 '싱크 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이 요구
- 창의적인 '산학-연계'와 실험적인 '교육-공연' 제작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예술계의 신진 예술가와 기획제작자들의 사회진로 다각화 추진
- 전통예술 정책의 주요 인프라와 법령 등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 혁신을 위한 문제의식의 공유

2. 사업 기본 방향 - 기본 방향과 주요 사업

1) 전통예술 문화자원 활성화 통합 시스템 구축

① 전통예술 콘텐츠 통합제작센터 구축

-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공연기획-제작-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전통예술 양식을 적극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극적연출과 마케팅 전략이 수립
- 전통예술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작활동-공연 및 음반 제작-예술 시장유통’ 전체 과정을 ‘One-Stop’ 체제로 만들 수 있는 통합적 제작센터 구축
- ‘프로듀싱-매니지먼트-프로모션’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 전문가 양성
- 국악, 무용, 연희 장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악·가·무·연희” 통합 콘텐츠 개발
-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공급대상자인 기업과의 전통원형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MOU 체결.
- 전통문화원형 개발의 통합 장르적, 통합예술적인 연계 시스템 개발

② 전통예술 자원의 통합적 아카이브화와 활용

- 전통예술 관련 자료들의 기록, 보관, 활용의 체계가 대단히 부실
- 전통예술 공연 및 학술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전통예술 유산을 디지털화해서 영구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될 필요
- 전통예술 자원의 e-learning system 도입이 필요
- 전통예술 공연, 문헌, 인물, 악기, 원형 등에 대한 자료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국악 전용 포털 사이트 구축

2) 새로운 전통예술 공연 양식 및 예술가 양성

- 최적의 전통예술 무대양식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 및 개발
-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건립추진
-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연양식 개발
- DIGITAL 기술기반의 악,가,무 및 전통 소재의 미디어 양식 공연 및 전시 개발

③ 신진 예술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 대학 전통예술 관련 학과(40여 개 학과)에 연 2500여 명 이상의 대학생이 졸업하나 진로가 불투명
- 대학에서 간과하는 전통예술 구성 원리에 대한 재교육 필요(동양철학, 역사, 인문학)

○ 젊은 전통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양식을 실험하고 다장르와 연계하거나 창작적인 시도를 통해 전통예술의 대중화,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신진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공연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전통예술계를 젊게 할 필요

○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통유산을 보존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전통예술 분야 신진예술가들이 대중음악,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 폭넓은 국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3) 지속가능한 한류와 아시아 전통예술 교류 확대

④ 한국 전통예술의 아시아 ‘문화-허브화’

○ 한국의 음악, 노래, 무용, 연희, 한복, 한지, 건축 등 전통문화예술 양식을 아시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문화산업을 넘어서는 문화교류가 요구됨.

○ 아시아 전통예술양식의 유사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아시아 전통문화 교류를 주도

○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위해 전통예술 자원을 아시아국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

○ 생활세계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아시아인들에게 알리는 것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들이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아시아 전통문화 연계 교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대중문화 영역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영역에서도 한국이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

⑤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 민족예술교류 프로그램 전면 확대

○ ‘동북아 균형자론’의 생산적 역할을 위해서는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분단 긴장 체제를 완화할 필요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설,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상례화 등 남북한 긴장관계가 완화되었고, 이를 문화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남북예술인들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

○ 현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에서 남북한 예술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남북한 문화예술 장르와 공연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며,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민간 예술 자원의 정기적, 체계적, 지속적 교류정책이 필요한 상황

○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전통문화 교류의 전면 확대를 의제로 설정

4) 전통예술의 혁신적 교육모델 개발

⑥ 전통예술교육의 현대화와 혁신 교육모델 개발

○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디지털화, e-learning 교육콘텐츠를 적극 개발
○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이 접목될 필요가 있음.

○ 전통예술원 내의 교육 커리큘럼을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

○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체계 마련

○ 전통문화예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원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육하는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관련 재교육 교육과정을 개발

5) 전통예술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⑦ 전통예술 제도 혁신을 위한 TF팀 구성

○ 전통예술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예술계의 현안들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통예술 분야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모델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장르별, 기관별, 대학 별 분산되어 있는 전통예술 정책의 현안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

○ 문화재보호법, 지역문화원법 등 전통문화관련 법과, 무형문화재 제도, 전통 예술관련 공공기관의 운영평가와 혁신 등 전통예술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예술 제도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냄.

3. 사업 범주별 기본 로드맵

사업 영역	주요 사업	세부사업
전통예술 문화자원 활성화 통합시스템 구축	전통예술 콘텐츠 통합제작 센터 구축	○ 전통예술통합제작센터설립 ○ 전통예술 공연제작아카데미 개설
	전통예술자원의 통합적 아 카이브화와 활용	○ 전통예술 공연 종합 디지털 서비스 구축 ○ 한국예술학 총서 발간
새로운 전통예술 공 연양식 개발	전통예술 무대 양식화 본격 추진	○ 전통음악, 연희, 무용에 최적의 공연 장 건립추진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전통 예술 공연 창작활성화	○ 아동 창작 음악극, 연희극 창작지원 ○ 크로스오버 국악 페스티벌 개최 ○ 전통예술 활용 사회취약 계층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신진예술가 업그레이드 프 로젝트	○ 청소년국악관현악단 활성화 ○ 신진예술가 음반 제작지원 ○ 신진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한류와 아시아 전통예술 교 류 확대	한국전통예술의 아시아 '문 화-허브화'	○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센터 설립 ○ 아시아 전통예술 자원 아카이브화 ○ 전통예술 'AMA' 장학생 선발 확대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 민족 예술교류 프로그램 전면 확 대	○ 남북한 민족예술대축전' 기획-추진 ○ 남북한 전통예술 자원 공동연구 ○ 젊은 세대의 예술인적 교류 활성화 마련
전통예술의 혁신적 교육모델 개발	전통예술교육의 현대화와 혁신 교육 모델 개발	○ 전통예술 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확보-전문가 재교육시스템 마련 ○ 한국예술학 협동 프로그램 개설 ○ 전통 문화유산 대중교육 콘텐츠 개발 ○ 전통예술 전수교육 e-learning 개발 ○ 전통문화 분야 전문강사 재교육 프 로그램 개발
전통예술 장기발전 을 위한 제도개선	전통예술 제도 혁신을 위한 TF팀 구성	○ 전통문화 기관 및 법령 정비를 위 한 연구조사 사업 ○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 전통문화 계승 '명가(名家) 발굴

4. 주요사업 계획

1. 전통예술콘텐츠 통합제작 센터 구축

1) 제안배경

-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공연기획-제작-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전통예술 양식을 적극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극적연출과 마케팅 전략이 수립
- 전통예술공연 양식은 현재 과거의 양식을 계승 보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작

되어있음.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중과 친근한 공연양식이 필요한 상황.

- 전통공연 분야는 특히 공연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가 취약하여 잠재적 관객층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공연을 현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창조적인 프로덕션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함

2) 현황

- 매년 수천 개의 전통문화 공연프로그램들이 연주되고 있지만, 새로운 공연양식들은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예술의 악·가·무(樂·歌·舞)의 형식들을 계승 보급하는 목적과 함께 이들 공연양식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다른 현대적인 예술양식과 접목하는 통합 예술적인 관점이 가미될 필요가 있음.

- 젊은 연주자들이 최근 다양한 실험적 전통공연예술 및 그룹활동(‘푸리’, ‘공명’, ‘진동’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규모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

- 전통예술공연 양식을 전문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전문기획인력이 다른 장르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임. 전통예술 분야에 공연기획, 공연마케팅, 공연홍보 및 재원 조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됨.

3) 사업방향

- 전통예술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작활동-공연 및 음반 제작-예술 시장유통’ 전체 과정을 ‘One-Stop’ 체제로 만들 수 있는 통합적 제작센터 구축

- ‘프로듀싱-매니지먼트-프로모션’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 전문가 양성

- 국악, 무용, 연희 장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악·가·무·연희” 통합 콘텐츠 개발

-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공급대상자인 기업과의 전통원형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MOU 체결.

- 전통문화원형 개발의 통합장르적, 통합예술적인 연계

4) 세부 추진사업

① 전통예술통합제작센터설립

- 기본 방향

- ‘교육+창작+공연제작+음반제작+유통마케팅’ 통합적 제작 시스템 구축

○ 공연제작과 음반제작 및 유통마케팅은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연시장과 연계

- 추진일정

○ 전통예술통합제작센터 조직구성

(센터소장, 기획실장, 공연기획제작팀, 음반기획제작팀, 마케팅팀, 운영지원팀 구성)

○ 전통예술통합제작센터 인프라구축

(공연기획실, 공연제작실, 음반스튜디오(녹음, 편집, 마스터링), 공연마케팅실)

○ 전통예술통합제작 관련 산학협력 체결

② 전통예술공연제작 전문아카데미 개설

- 기본방향

○ 전통예술공연제작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공연기획, 음반제작, 공연제작, 공연유통마케팅 전문인력들의 육성으로 전통 예술계의 새로운 인력을 창출

2. 전통예술 자원의 통합적 아카이브화와 활용

1) 제안배경

○ 전통예술 관련 자료들의 기록, 보관, 활용의 체계가 대단히 부실

○ 전통예술 공연 및 학술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전통예술 유산을 디지털화해서 영구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될 필요

○ 전통예술 자원의 e-learning system 도입이 필요

2) 현황

3) 사업방향

○ 전통예술공연 정보, 공연양식, 공연연보, 공연내용을 온라인으로 정리 및 기록 보관

○ 전통예술 공연, 문헌, 인물, 악기, 원형 등에 대한 자료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국악 전용 포털 사이트 구축

○ 악·가·무 연희 및 미술, 공예, 건축 등 한국예술학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획총서를 발간

4) 세부 추진사업

① 전통예술 공연 종합 디지털 서비스 구축

- 기본방향

- 국립국악원에 전통예술 종합 디지털 서비스 지원단 구성
- 매년 무대에 올리는 전통예술 공연 품들의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 및 문화자원의 영구 보존
- 장르별 공연정보, 공연양식별 정보, 공연작품해설 및 공연 사진 및 영상 서비스 제공
- 공연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연예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공연정보 및 자료를 제공

- 추진일정

- 전통예술공연 자원 디지털-서비스 지원단 구성
- 전통예술공연 자원의 통합적 정보 제공 및 분류 기록 작업 추진
- 전통예술공연 자원 통합적 정보에 대한 평가

② 한국예술학 총서 발간

- 기본방향

- 동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재편의 흐름에서 한류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한국예술에 대한 학술적, 문화적 연구를 체계화
- 기존의 사료를 바탕으로 악가무와 연희 예술 양식의 기원과 특성, 한국적 미학의 정립에 따른 일관된 형태의 학술적으로 정리.

- 추진일정

- 한국예술학 총서기획을 위한 총서발간위원회 구성
- ‘한국예술학 총서100’ 기획
- 한국예술학 총서 영어 번역작업을 통해 대학 및 학술 및 예술 단체에 보급

3. 전통 공연장 건립 추진

1) 제안배경

- 전통이 친 자연 친 환경으로서 우수한 예술 원리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 문화요인임이 점점 밝혀짐.
-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 국악원의 공연장이 안고 있는 모순을 개선해야 함.
- 국악관현악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십 개가 있는 것에 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양식에 걸 맞는 최적의 공연장이 전국적으로 전무함.

- 새로운 전통예술 인력을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공연양식을 개발

2) 현황

3) 사업방향

- 전문전통예술 공연장 건립
- 상설 전문공연장 건립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관객개발-고급 관광 상품으로 개발
- 국립연희단 창설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통예술공연 양식 개발, 국제 공연무대 진출

4) 세부 추진사업

① 국립연희단 창설

- 기본방향

- 국립극장, 혹은 국립국악원 내 국립연희단을 창설
- 국립창극단은 소리 중심의 공연예술, 국립국악원 민속음악단은 음악중심의 공연예술을 특화시키고 국립연희단은 사물, 풍물, 농악, 굿, 마당극, 종합연희극을 중심으로 특화
- 사물놀이, 풍물 중심에서 종합적인 연희공연으로 확대
- 세계 공연예술의 흐름상 각국의 전통예술을 현대화하는 공연브랜드를 참고하여 한국적 연희예술과 창작연희극을 국제 무대에 참여

- 추진일정

- 국립연희단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국립연희단 조직구성과 소속기관 결정
- 국립연희단 설립에 따른 전통예술계 자문 구성
- 국립연희단 단원 모집
- 국립연희단 창단

② 전통예술 전용극장 건립

- 기본방향

- 전통예술이 전용으로 공연되는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 건립
- 기존의 공연장을 악가무 중심의 전통형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 다양한 연희공연이 연중으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용상설 공연장건립
- 기본의 공연장 부지를 중심으로 전용공연장 건립을 추진

- 추진일정

- 최적의 전통예술에 걸 맞는 전문공연장 연구조사
- 전문 공연장장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공청회 개최
- 전문 공연장 부지선정 및 설계 의뢰-완공

4.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전통예술공연 창작활성화

1) 제안배경

- 전통예술 공연의 관객들은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관객층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관객층 개발의 부진으로 전통예술의 창작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음.
- 전통예술의 공연유통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공연 이외에 공연시장에 참여하는 공연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
- 전통예술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관객개발과 유통체계 마련.
- 국악을 포함한 전통예술 분야가 갈수록 일반 대중들과 멀어지고 있어 문화 경쟁력이 떨어짐.
-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지원의 규모에 비해서 국악의 대중화, 혹은 좀 더 폭넓은 관객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존 지원 사업들은 일면적, 일시적인 미봉책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짐
- 크로스오버와 퓨전 전통음악, 실험음악 등 장르별로 다양하게 분류되는 전문음반 레이블을 설립-유통방식개발 확보

2) 현황

3) 사업방향

- 대중들이 전통예술을 친근하게 대하고, 생활 속에 전통예술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창장 음악극, 연희극 개발지원
- 대중음악과 클래식과 전통예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중적인 페스티벌을 개최
- 전통예술의 다양한 공연양식들을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4) 세부 추진사업

① 아동 창작 음악극, 연희극 창작지원

- 기본방향

- 전통예술자원을 기반으로 한 아동 창작 음악극, 연희극 제작을 활성화
- 아동창작극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전제작비 지원
- 다양한 아동창작극 개발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연기회를 부여

- 추진일정

-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전통예술 아동창작극 공모사업 진행
- 전통예술아동창작극 제작지원

② 크로스오버 국악 페스티벌 개최

- 기본방향

○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국악과 대중음악, 국악과 클래식이 만날 수 있는 공연무대를 제공

- 크로스오버 국악 페스티벌을 통해서 역량있는 전통예술인들을 발굴 지원
- 크로스오버 국악 페스티벌을 통해 젊은 층들에게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유도

- 경쟁 페스티벌 형식을 통해서 국제적인 월드뮤직 페스티벌로 확대발전

- 추진일정

- 크로스오버 국악페스티벌 개최 관련 자문회의
- 크로스오버 국악페스티벌 개최 시기와 방식 논의
- 크로스오버 국악페스티벌 개최

③ 전통예술 활용 사회취약 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 기본방향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사회문화예술지원 분야에 전통예술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복권로또 기금을 이용한 전통예술 문화교육 사업을 특화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청소년, 심터청소년, 이주노동자, 노인)에게 사물놀이, 국악연주 등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 실기연주교육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전통예술 문화예술교육 특화사업을 실시

- 추진일정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간 지원사업 중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지

원분야를 고정적으로 배치

- 사회적 취약계층별로 전통예술 교육사업을 심사 후 선정
- 전통예술과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평가 및 연구

5. 신진예술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1) 제안 배경

- 대학 전통예술 관련 학과(40여개 학과)에 연 2500여명 이상의 대학생이 졸업하나 진로가 불투명
- 젊은 전통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양식을 실험하고 다장르와 연계하거나 창작적인 시도를 통해 전통예술의 대중화,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신진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공연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전통예술계를 젊게 할 필요
-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통유산을 보존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전통예술 분야 신진예술가들이 대중음악,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국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2) 현황

-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공연물이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고 있지만, 새로운 예술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 젊은 국악인들의 해외 연주활동과 대중음악인과의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들을 국제무대에 진출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없는 상태
- 전 세계적으로 월드뮤직이나, 크로스-오버 음악 등이 인기를 얻고 있고 음악 수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음
- 공연예술도 전통연희 양식을 현대화하는 퍼퍼먼스 공연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3) 사업방향

- 신진예술가들이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진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활동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진예술가들 지원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매년 음반 및 공연활동에 대한 제작지원
- 전통예술 분야 신진예술가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적인 체류와 공연체험 및 공연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4) 세부 추진사업

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활성화

- 기본방향

- 현재 대학어울림악단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관현악단으로 육성
-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대학 국악 페스티벌 개최
-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연주자들을 확보
- 전통적인 오케스트라형식의 관현악단의 형식을 탈피해서 내부적으로 독주 및 실내악과 그룹연주가 가능하도록 육성함은 물론 다양한 양식의 공연을 일찍부터 시도해볼 기회제공

- 청소년 국악을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에 진출시킴

- 추진일정

- 전통예술 전공자들에게 스스로 악단의 형태를 조직화 할 연구수행
- 모집공고를 통한 오디션 마련
- 대학 국악 페스티벌 및 정기연주회 및 순회연주회 개최
- 다양한 공연양식 실험-(예)어울림 악단의 Sound Performance 소리숲)

② 신진예술가 음반제작지원

- 기본방향

- 국립국악원에서 신진예술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음반제작지원
- 국립국악원과 음반제작사와 협력체결을 맺어 연간 20여편의 음반을 제작지원
- 신진예술가들의 음반제작지원을 통해 아시아와 국제 음악계에 한국 전통음반을 소개

- 추진일정

- 신진예술가 음반제작지원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를 통해 장르별, 영역별로 신진예술가들을 선정하여 음반기획 및 제작지원
- 음반제작사와 음반제작지원에 대한 계약 체결

- 음반제작지원 신진예술가들의 연주회 개최

③ 신진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 기본방향

- 신진예술가들에게 국제적인 예술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 예술교육 체험을 제공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해외 레지던스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통예술 분야 신진예술가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현지 공연기회 및 창작물을 연구하고 완성할 수 있는 미션을 부여

- 추진일정

-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중 전통예술분야에 해외레지던스 지원 사업을 지정
- 지원사업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진행
- 신진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
- 신진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회나 연구보고 형태로 제출

6. 한국 전통예술의 아시아 ‘문화-허브화’

1) 제안배경

-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왕의 남자’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
- 전통 콘텐츠를 고품격 고급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 절실
- 한국의 음악, 노래, 무용, 연희, 한복, 한지, 건축 등 전통문화예술 양식을 아시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문화산업을 넘어서는 문화교류가 요구됨
- 아시아 전통예술양식의 유사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아시아 전통문화 교류를 주도
-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위해 전통예술 자원을 아시아국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
- 생활세계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아시아인들에게 알리는 것만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들이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아시아 전통문화 연계 교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대중문화 영역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영역에서도 한국이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

2) 현황

- 동아시아 내에서 한중일 중심의 연주자들이 정기 교류연주회를 갖고 있는 상황
- 최근 공연 교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에 대한 공동의 학술토론회도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음.
- 전통예술원에서도 한중 전통예술 교류연주회, 한일교류연주회, 한 대만 교류 연주회 등 다양한 교류연주회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동아시아 내 전통문화의 교류는 주로 전문연주인 중심의 공연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젊은 예술가들 간의 교류, 한중일을 넘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는 부족한 상황

3) 사업방향

- 동아시아 안에서 한국의 전통예술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센터 설립을 통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기록, 연구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마(AMA) 장학생 사업에서 전통예술 분야 장학생을 확대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전통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

4) 세부 사업계획

①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센터 설립

- 기본방향

-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안에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센터를 설립
-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센터에서 연간 한중일 전통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
-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전통예술교류 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

- 추진일정

- 광주아시아중심도시조성위원회 내 아시아전통예술 교류사업을 추진
- 아시아전통예술교류센터 설립
- 아시아전통예술교류센터 사업계획을 위한 연구

② 아시아 전통예술 자원 아카이브화

- 기본방향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안에 아시아 전통예술 자원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아카이브화

○ 동아시아 전통예술 관련 문헌, 악기, 연주채보, 의상 등을 오프라인으로 뮤지엄 개설

○ 동아시아 전통예술 관련 문헌, 악기, 연주채보, 의상 등을 온라인 뮤지엄으로 운영

- 추진일정

○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내 사업으로 제안 및 심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갈 자료 수집 및 뮤지엄 공간 확보

○ 동아시아 전통예술자원 수집과 분류 체계 마련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시에 함께 오픈

7.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민족예술교류 프로그램 전면 확대

1) 제안배경

○ ‘동북아 균형자론’의 생산적 역할을 위해서는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분단 긴장 체제를 완화할 필요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설,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상례화 등 남북한 긴장관계가 완화되었고, 이를 문화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남북예술인들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

○ 현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에서 남북한 예술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남북한 문화예술 장르와 공연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민간 예술 차원의 정기적, 체계적, 지속적 교류정책이 필요한 상황

○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전통문화 교류의 전면 확대를 의제로 설정

2) 현황

3) 사업방향

○ 동북아 평화공존의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남북한 민족예술교류 프로그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민족예술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 동질감 회복의 의제를 제안
- 지속적인 남북한 전통예술의 공연 교류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
- ‘815광복절’에 남북한 전통예술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815민족예술대축전’을 개최
- 한국과 북한의 대학 및 예술단체와의 연계 및 교류 체계화

4) 세부사업 계획

① ‘815남북한 민족예술 대축전’ 개최

-기본방향

- 민족해방일인 8월 15일을 기점으로 매년마다 남북한 민족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민족예술 대축전을 개최
- 한국의 광복절 행사와 북측의 ‘815민족통일 대축전’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구성
- ‘815남북한민족예술 대축전’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과의 교섭창구 마련
- ‘815남북한민족예술 대축전’을 매년 남측과 북측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
- 악가무 연희 등 총체적인 교류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추진일정

-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
- ‘815남북한민족예술 대축전’실무 준비위원회 구성
- ‘815남북한민족예술 대축전’ 개최

② 남북한 전통예술 자원 공동연구

-기본방향

- 남북한 전통예술 자원의 비교조사 연구 실시
- 북측의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남북한 전통예술자원의 공유 및 교환 프로그램 개설
- 전통예술의 기원과 뿌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중국의 동북아공정론에 대비
- 남북한 전통예술 학자 간의 공동학술연구조사단 운영

-추진일정

- 전통예술분야 남북한 자원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단 구성
- 북측에 공동연구조사 제안

- 북측과 전통예술 자원개발 공동조사연구단 구성
- 남북한 전통예술 자원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연구진행

8. 전통예술교육의 현대화와 혁신 교육모델 개발

1) 제안배경

-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디지털화, e-learning 교육콘텐츠를 적극 개발
-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이 접목될 필요가 있음
- 전통예술원 내의 교육 커리큘럼을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
-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체계 마련
- 전통문화예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원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육하는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관련 재교육 교육과정을 개발

2) 현황

3) 사업방향

- 전통예술 분야의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전통예술 교육혁신화
- 한국예술을 총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통합적인 협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연양식에 대한 교육
- 한국의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예술 명인들의 예능을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화가 필요
- 전통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4) 세부추진 사업

① 전통예술 협동 프로그램 개설

- 기본방향

- 전통예술의 ‘악가무 연희’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연극 미술 영상과 전통예술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협동프로그램 개설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전통예술 통합교육을 위한 협동프로그램 개설
- 학생들을 포함해 전통예술분야 및 예술분야 전문인들의 재교육을 담당

- 추진일정

- 통합적 전통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
- 통합적 전통예술교육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설
- 협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작 및 학술연구 도출

② 전통 문화유산의 대중교육 e-learning 콘텐츠 개발: 한국의 문화유산의 뿌리를 찾아서

- 기본방향

- 유형문화재뿐 아니라 무형문화재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의 역사, 가치, 서사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양질의 한국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
- 각 전통예술 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연계, 공동으로 문화유산 대중교육 콘텐츠 개발

○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교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방송국이나 출판사에 보급판매

○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 콘텐츠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전통문화 교육에 기여

- 추진일정

- 교육콘텐츠로 활용해야 할 한국의 문화유산 주요 목록을 작성
- 문화재청과 전통 문화유산 e-learning 콘텐츠 개발 사업 제안
- 간 분야별 문화유산 전문가를 섭외하여서 관련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개최
- 강의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국내외 방송국(EBS)과 섭외하여 관련 자료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③ 전통예술 전수교육 e-learning 콘텐츠 개발

- 기본방향

○ 현재 전통공연예술 지도에 있어서 각 분야의 일인자로 구성된 교·강사진의 전 수업과정의 기록을 디지털 영상화하여 분석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전수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체계가 구성.

○ 각 전통예술 연구소와 기관이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각 영역의 명인들의 교육과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음악, 무용, 연희 등의 전통공연예술은 전통적으로 1대 1식의 구전심수 방법으로 전승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현대화된 교육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전수 방법은 크게 개선된 바 없이 그대로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영상 교재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디지털 영상 교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

- 추진계획

○ 디지털 교재 편찬 위원회 운영

먼저 디지털 교재 편찬을 위하여 기존의 서적으로 제작된 교재의 내용을 검토하고, 각 음악, 무용, 연희 별 기초 전습 내용에 대한 콘디를 작성할 디지털 교재 편찬 위원회를 발족한다. 디지털 교재 편찬 위원회에서는 매 해 제작할 공연 예술 종목을 선정하고, 각 종목별 전수를 위한 교재 시범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 확정한다.

○ 우수 전통예술 수업 과정 녹화

각 대학 국악과에서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서 진행되는 실기 수업의 디지털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들 동영상은 디지털 교재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전통예술의 기록 보존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 디지털 영상 교재 제작

위의 과정을 통해 집적된 자료를 통해, 영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종 편집 회의를 거쳐 디지털 교재를 제작한다.

○ 디지털 영상 교재 서비스

최종 편집된 디지털 영상 교재는 DVD 등 기타 여러 매체로 제작되어 보급될 수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웹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공될 것이다.

④ 전통예술 분야 전문강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본방향

○ 전통예술 분야에도 2000년 국악강사풀제 실시 이후에 매년 2000여개 학교에서 1000여 강사들이 활동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전통예술 분야 전문강사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사회문화 분야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마당극 등 전통연희 공연들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국악강사풀제 전문강사들의 연수과정을 포함해서 학교 정규교사, 사회문화 활동을 하는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전문강사들을 배출

- 추진일정

○ 전통예술문화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 연간 2회에 걸쳐 전통예술교육자들을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

〈첨부자료 2〉

전통예술인력 해외 레지던스 구상안

작성: 원 일

1. 목표

- 전통예술(악가무, 연희)분야 창작자, 전문예술가, 기획자, 제작자들이 국제적인 예술감각을 익히고 세계 예술시장에서 한국 전통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넓혀 전통컨텐츠의 국제경쟁력 인프라를 확대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예술가, 예술단체들과의 현지 공동 작업을 활성화
- 월드뮤직 시장에서 경쟁력과 인지도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예술)그룹 창출 (국가 브랜드 단체육성)
- 전통예술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 활동 전문 인력 양성

2. 필요성

- 국제적 감각을 익힌 전통예술 전문인들이 너무 부족-우물 안 개구리
- 젊은 전통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전통예술의 국제화 필요성
- 국제화 경로를 통한 국내 전통공연예술의 질적 향상(정보와 네트워크 피드백)
-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예술인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공동 작업추진-한국전통예술의 해외 인지도 강화

3. 기대효과

- 전통예술의 악가무 연희 분야의 창작인 해외진출-국제감각의 예술역량 키움
- 해외 유명예술기관 혹은 유명 예술인들과 교류 활성화-한국 전통예술의 현지화 전략

-세계 예술인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예술인들과 의 공동작업 활성화-국제 인지도 높임

-해외 문화예술의 동향 정보 파악과 예술계의 국제적 창작 환경 학습

4. 추진방법

>전통예술 레지던스 교류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류지원의 가이드 라인 마련

>해외 주재 한국 문화원과의 전략적 현지 협업망 구축

>가칭 <전통예술 국제화를 위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신청인 신청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예술가 스스로 추진중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검토 후 지원

5. 평가

>1차 레지던스 기획안 로드맵 평가

>해외 레지던스 협조 기관 및 단체(예술감독)의 평가 수용

>추진위원 또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현지(진행)답사

>레지던스 OUTPUT 의 파급효과 분석-워크샷, 공연, 연구

>해외 주재 한국 문화원의 의견수용

6. 지원대상자 및 자격조건

-전통예술 분야 전문 예술가(음악, 무용, 가창, 연희) 와 창작 그룹

-전통예술 분야 공연기획 및 제작 분야의 전문인력

*대학 및 대학원생 레지던스는 전문가 시행 후 별도 검토필요

7. 지원장소

>아시아권

>유럽권

>북미권

>기타

*국가의 의미보단 예술가나 기관 혹은 단체와의 협업이 의미가 큰 경우는 지역은 무의미

8. 지원제출 서류

이력서

기활동경력서

공모전에 희망하는 레지던스 기관에 공식 허가서

레지던스 활동 계획서

*재정 자립도방안이 별도로 있는 기획과 해외와의 예산 공동 편성일 경우 우선
선택

9. 지원규모

<6개월-1년 레지던스 지원>

단기와 중,장기 레지던스로 분화

단기-2주이상~3개월미만

중기-3개월 이상~6개월미만

장기-6개월 이상~1년이상

토론

전통예술 지원사업 현황과 제안

한 만 주 (한국문화예술기획 대표)

- 전통예술은 민족정체성 확립이라는 명제와 21세기 문화시대의 묘목사업인 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의 형태 등 전통예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부 터 시행
- 지원심의체계 효율성 및 관리,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전통예술을 위한 가치의 확산, 취향의 확산, 인식의 확산 방안 마련

1. 21세기 문화의 시대의 묘목사업은 전통예술이다.

전통예술은 민족정체성을 일깨우는 국민정신의 지주이자 자양분이다.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가이미지가 문화에 의해 선도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의 블루오션은 분명 전통예술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과수사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대중예술로 21세기 문화한국을 선도하기엔 많은 난관이 있다. (적극적 문화시장 개방 등)

앞으로 과수사업이 될 묘목사업으로 전통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술계의 창조적 역량과 국가의 지원이 결집되어야 한다.

2.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그리고 사후지원

전통예술은 사업의 특성상 가시적인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를 필요로 한다. 전반적으로 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모든 예술 사업이나 예술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

기가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통예술 지원 사업의 하나인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과 <신진예술가 뉴스타트지원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로 그동안 쌓아온 성과들이 지속되지 못함을 개선한 사업으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진예술가 뉴스타트지원사업>은 만35세 이하 예술가 및 첫 데뷔를 치르는 신진예술가 지원이 목적인데, 지원조건이 ‘선택’이기는 하나 1회성이라는 한계(재도전 불가)로 ‘집중’과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는 서두에 언급한 장래 전통예술을 이끌어 갈 모퉁사업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신진예술가 들에도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접지원’ 유형에는 <예술전문인력육성(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과 <예술현장의 기반조성(소공연장지원)사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지원받는 소공연장을 대관시에는 일반 대관료의 50%를 할인 받으며, 청년인턴채용지원도 일부 지원금을 단체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공연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연습장 대여 등도 간접지원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은 1년의 사업 활동을 평가하여 다음해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평가가 최저일 때는 지원 중단 등)을 철저히 실행한다면 ‘사후지원’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후지원’은 소액다건(5백만원~1천만원)인 전통예술지원 형태에서 전액지원도 아닌 일부지원에서 ‘사전과 사후’를 나누어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논의와 가능성을 타진한 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3. 지원심의체계 효율성 및 관리,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원심의를 학계 일변도에서 현장 전문가

로 확대해야 한다. 예술계 현장과 학계의 구분 없이 진행된 심의는 전통예술이 아닌 모든 장르의 예술에서도 일반적인 관례처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심의 편익주의, 안전주의에 빠진 관계기관들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예술가, 학자, 현장전문가, 평론가, 행정가 등 각계가 포함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향된 심의는 전략적 관점이 없는 나눠주기 식(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고,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지체해선 안 될 것이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각종 관리기반의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술위원회의 컨설팅팀 발족은 주목할 만한 조치라 평가된다.

4. 전통예술을 위한 가치의 확산, 취향의 확산, 인식의 확산 방안 마련

전통은 역사다. 역사는 기록이다. 선조들의 삶의 기록 속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진 지혜나 슬기의 집합이 전통이다. 나라마다 전통과 역사가 있다. 수천 년의 역사도 있고 수백 년의 전통도 있다. 과학과 자본이 발달한 산업 국가로서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가하면, 문화예술이 발달된 문화 국가로서의 전통과 가치가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가 선진산업국가로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지만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닌 문화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중심에 전통예술이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치의 확산, 취향의 확산, 인식의 확산 등에 예술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

예술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거시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미시적 관점)에서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세가 있는 듯하다. 이제 문화예술도

경제적 관점(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성과주의는 오히려 문화예술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지원방식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 * 문화예술 4대 지원방식 :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확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 지원 사업 유형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 전통예술 무대양식화 사업
 - 예술전문인력육성(청년인턴채용지원)
 - 신진예술가뉴스타트지원
 - 예술현장의기반조성(소공연장지원)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토론

전통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윤명원(단국대 교수)

I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방안”에서 현재의 문화예술지원방식을 논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수준의 제고 등 주요한 목표에서 실질적이고 상응한 성과(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중요 원인으로 지원방식의 실질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과 시장실패이론(기금에 대한 의존성)을 들고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 민간자원의 동원 등 지원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사업자체가 직접적인 자금지원 중심·소액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단체지원 중심으로 전환과 연계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택에 대한 가치, 집중에 대한 적절성 및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는 되지만 지원방식의 변화와 방향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소액다건주의’ 지원에서 적절한 규모의 다액소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1회성 프로젝트 중심에서 다년간 프로젝트 또는 단체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 일방적, 시혜적 차원의 보조에서 자생력과 지원대상의 노력 및 성과를 연계하는 방식, 정부-지자체 예산기능과의 무조건적인 분담과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휴와 협력, 네트워킹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은 매우 바라직하다고 본다.

II

현재 정부 차원의 전통예술 창작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부터 나온다. 물론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다양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의 전통예술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그 지원의 의사 결정과정이 많은 부분 편중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전통예술지원방식은 이쁜 사람 콧감 하나 더 주는 식의 인맥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안타깝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결정 결과를 보면 누구누구가 심사를 하였는가에 따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더더욱 그 결정과정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예술지원 행사는 그 시행의 절차나 과정이 더더욱 편중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I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를 새삼 강조하고 싶다. 지원 방식의 총체적인 문제는 이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향도 지원의사 결정구조도, 그 결과의 모니터링과 검증도 제도적인 구조와 필터링도 모두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택과 집중, 참으로 좋은 미션이다. 나눠먹기 식의 소비성이 아닌 좋은 목표이다. 단, 그로 소외되는 계층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지원방식, 그 구조와 과정을 명쾌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한하지만 심사위원의 면면이 편중되어 나타나는 불합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이나, 그 결과의 반영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이 출연하는 매칭펀드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경우로 적극 장려하였으면 한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될 한국문화예술의 지원 방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어, 보다 명쾌하고 현실적인 현 정부의 성공적인 예술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토론

전통예술환경의 문제점들

- 전통예술의 산업화와 사업운영전략의 전환을 중심으로 -

김 대 진(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기획팀장)

발제문에서 언급한 전통예술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실제로 수없이 겪고 있는 일이기에 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특히 소재주의의 문제는 기실 예술적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으로는 “전통예술의 산업화”와 “정책운영전략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1. 전통예술의 산업화

예술적 가치추구는 예술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예술적 가치추구가 예술가의 삶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년 2,000여명의 전공자가 배출되고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은 지금의 전통예술환경에서 마냥 예술의 가치추구만을 논할 수는 없을 듯 보인다. 전통예술의 산업화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그 우려의 핵심은 전통예술의 가치훼손과 하향평준화다. 하지만, 전통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술(Content)을 토대로 제작환경 및 유통(System), 마케팅 환경을 산업화하여 예술적 가치 외에 경제적인 가치도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산업화의 의미일 것이다. 물론 맹목적인 산업화는 반드시 견제해야할 대상이다. 이는 예술의 가치훼손과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브랜드가치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몸(전통예술의 핵심가치)은 보다 더 건강하게 하면서 현실적 트렌드에 맞춰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커스라는 기본 틀을

지켜나가면서 컨버전스라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혼합하여 년 6억 5천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캐나다의 Cirque du Soleil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Cirque du Soleil 사례 (2003년도 자료)

- 1984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서커스업체
- 전세계 90개국서 공연, 관람객 5천만명
- 최근 10년간 22배 경제적 성장
- 캐나다 최대의 문화예술공연 수출업체
- 관객 7백만명, 매출 6억5천만달러
-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전략

• 고객 재 정의로 새 시장 창출

- “서커스를 보러 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 예전의 고객(어린이) → 새로운 고객 (어른들과 기업고객, 연극공연, 오페라, 발레 보던 사람의 흡수)

• 고객 가치 높이기

- 서커스의 즐거움과 스킬 위에 연극의 지적세련미와 예술적 풍부함 제공

• 비용 절감

- 동물 공연, 스타 광대 등을 없앴

2. “사업운영전략의 전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07공연관람객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관람객들의 선호하는 공연장르가 뮤지컬 34.4%, 대중음악콘서트 29.3%, 연극26.4%로 나타났다. 전통예술(국악)의 경우 1.2%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근거자료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전통예술관련 지원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해결방법의 필요를 의미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예술관련 사업이나 정책의 구체적인 제안 이전에 운영 전략의 전환과 명확하고 단순한 비전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운영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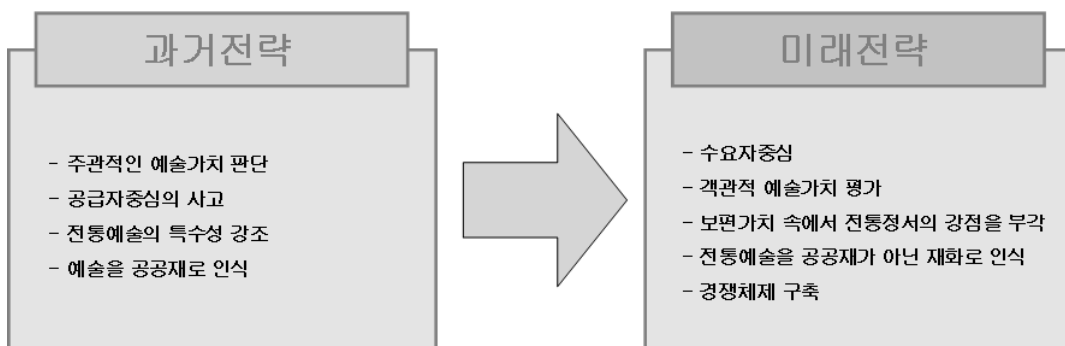
- 주관적인 예술가치 판단 및 정책의 평가, 심사
- 공급자중심의 사고
- 전통예술의 특수성 강조
-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혁명 시대에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창조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키워드로 부각 되면서, 실제로 예술수요자는 예술 공급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영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요자중심의 객관적인 예술가치 평가
- 국제적인 보편성에서 우리전통정서의 강점 부각
- 전통예술을 공공재가 아닌 재화로 인식 및 경쟁체제 구축

3. 전통예술의 산업화 및 사업운영전략 개선 제안

◎ 본제안의 목표는 실제 사업운영기획이 아닌 운영전략 개선임



1) 예술수요자를 위한 개선제안

- 평가방식의 전환(전문가평가중심 → 수요자반응평가)
- 소위원회, 심사·평가위원의 다양화

2) 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개선 제안

- 실질적인 사업운영 및 사업계획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강화
- 성공사례 개발 및 홍보
- 예술인 출신 의사결정자의 경영교육프로그램 개발

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을 위한 제안

- 기존, 전통예술에 대한 해설 및 안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기업후원, 프로모션 우수사례 표창을 통한 기업의 관심유도
- 개별 장르가 아닌 전통정서와 라이프스타일, 문화와 함께 부각
- 체험,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개발

4)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제안

-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계승, 발전에 대한 미의식체계의 새로운 연구 및 홍보
(전통예술의 특수성을 강조 → 국제적 보편정서 속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강조)
- 콘텐츠를 보유한 예술가들의 컨설팅, 유통, 마케팅을 지원

5) 전통예술인 지원

- 전통예술 전공을 포기하는 인원에 대한 관심필요 / 잠재고객확보전략
- 예술주변인력(기획, 제작, 홍보, 유통)의 인재개발 및 교육지원